

경제

지역 건설업 회생 길 없다

④ 사업 다각화 서둘러야

관급공사 의존 줄이고 수도권·해외로

부동산 경기 민감한 주택사업 축소
친환경 녹색건축물사업 진출 필요

“올해 해외수주 비중을 15%로 확대해 경영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금호산업 기옥 사장)

“특화된 원천 플랜트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 플랜트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무진기연 조성은 대표)

풍림산업에 이어 전북 중견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건설산업 구조의 고질적 문제인 공공공사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수주 역량 강화, 친환경 녹색건축물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가 절실하다는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건설사들의 발주자별 수주를 보면 공공부문 수주가

50%를 넘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전남지역 건설사들의 수주금액은 총 6조5464억원이었다. 이 중 공공부분이 3조4043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수주 비중 33.4%보다 무려 18.6%포인트 높은 수치다.

실제 상당수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은 건설사 스스로는 부동산 경기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주택사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 상당수는 주택사업 비중이 높다. 광주·전남에서도 남양건설·한국건설 등이 주택사업 위주다.

대한건설협회는 “전체 매출액 중 주택사업 비중이 70% 이상인 주택주력업체의 경우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인 이자보상비율이 2007년 2.4배에서 2010년 1.3배로 떨어지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전남 물량에 안주하지 말고 타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지역 주택업체들의 타 지역 공급물량은 2만562가구로 지난해 5000여 가구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중흥건설, 영무건설, 모아주택산업 등이 주도하고 있다. 주로 세종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울산-전북혁신도시 등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금호산업과 설비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올해 초 핵심 경영전략으로 해외수주

역량 강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무구조 개선, 내부고객 공감경영 등을 제시했다.

순천 성창이엔씨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푸아뉴기니에서 활발하게 플랜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수익성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녹색건축물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생존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전북 중견건설업체 우림건설이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1일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우림건설이 무리한 해외사업 추진과 건설시장 장기침체, 부동산개발 대출(PPF) 사업장 부실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 마동택지지구에 건설 중인 ‘중마 우림필유’(803가구) 등 단기적인 공사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권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자연 훼손과 민원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꺼리고 있다.

박정환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골재난이 심화되자 광주시와 각 구청, 인근 시·군청에 골재채취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책사업 및 대형 공공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골재 공급이 절실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도복권 (제496회)		2등번호 숫자	
4	13 20 29 36 41	39	
등 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285,932,250	4
2	5개 숫자+번호 숫자 일치	47,622,207	46
3	5개 숫자 일치	1,577,122	1,389
4	4개 숫자 일치	50,000	66,873
5	3개 숫자 일치	5,000	1,117,856



슬리밍 바디 관리 마사지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화장품 매장서 여름 시즌을 앞두고 한 직원이 여성 고객에게 몸매관리에 도움을 주는 슬리밍 제품으로 피부 마사지 시연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10대 유망기업 선정 육성 지원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과 창업 붐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0대 유망기업을 선정했다.

유망기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주)인송GE·(주)랩코, (주)해건·(주)바이오프로텍, 조선대학교 (주)엑스엠·(주)엔알티·(주)사

론테크, 호남대학교 인영피오에프스톤(주)·옴도파워(주), 전남과학대 옥일엔지니어링 등 10개사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우수기업을 추천받아 기술성, 기술성, 사업성, CEO역량 부문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유망기업을 선정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들 기업을 지

역혁신기업 육성사업의 기술·경영 통합 플랫폼 회원기업으로 지정해 기업 진단·분석,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광주테크노파크 입주와 지원 사업 심사 때 가산점도 부여한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실질적인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래·자갈 품귀...건설현장 아우성

광주지역 재고량 평상시 절반...U대회 선수촌·혁신도시 등 공사 비상

“모래·자갈 재고량이 평상시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골재난이 지속되면 광주지역 주요 건설현장은 3개월 내 멈춰설 겁니다.”

광주·전남 주요 건설현장이 골재난에 비상이 걸렸다. 레미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보름분량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골재난이 두 달 여동안 지속되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무등경기장 야구장·나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주요 건설현장이 멈춰설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와 인접 시·

군에서 골재채취가 중단돼 모래와 자갈 등 레미콘 원자재 확보난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25개 레미콘 회원이 하루 필요로 하는 원자재 소요량은 모래 2만6000여㎥이지만 공급량은 이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업체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 60~70km 운송거리를 감수하고 전북 순창·남원지역에서 원정 조달을 하고 있다. m당 2만원대에 달하는 유류대와 고속도로통행료까지 부담하면서 레미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해 m당 1만원대였던 모래 가격이 현재 1만8000~2만원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현장의 골재가격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에 이어 건설현장 공사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유출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골재난이 심화되면서 지역이 모래 유출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광주 건설현장은 3개월 내 멈춰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 공사에 들어간 나주 혁신도시 조성 사업, 무등경기장 야구장, U대회 선수촌 건립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레미콘업체는 광주시를 비롯해 인근 기초자치단체

광주세관 ‘어린이 세관학교’ 4~6학년 30명 대상 세차레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2일(토), 9일(토), 16일(토) 등 총3회에 걸친 토요일을 이용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30명에게 ‘제2기 어린이 세관학교(Kids Customs School)’를 운영한다.

어린이세관학교는 토요일을 확실히 즐길 수 있으면서 ‘오감만족’을 키워드르 견학, 체험 등 미래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2일에는 어린이 관심유도를 위해 ‘진짜가짜상품 이야기’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9일에는 호남관세전시관(군산)과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등 수출입통관 및 관



세국경감시 업무현장을 견학하게 된다. 16일에는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여행사 휴대품 통관 업무를 이해하고 마약견 탐지 시범에 직접 참여해 마약류 등 사회 위해 물품의 폐단을 인식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전년도 어린이세관학교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세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SEAN CULTURE & TOURISM FAIR 2012 아세안축제

ACTf
ASEAN CULTURE & TOURISM FAIR

2012. 6. 6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EXPO HALL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2012. 6. 9-10
디큐브시티 내 야외무대 신도림역 디큐브파크 D-CUBE PARK in D-CUBE CITY SHINDORIM, SEOUL

BRUNEI DARUSSALAM | CAMBODIA | INDONESIA | LAO PDR | MALAYSIA | MYANMAR | PHILIPPINES | SINGAPORE | THAILAND | VIETNAM

제주도 현지 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주세요

목포&녹동(고흥)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목포 119,000원 녹동 142,000원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되됩니다~

목포출발	『목카투어』 119,000원	녹동(고흥)출발	『녹동투어』 142,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83,000원 [주중+주중] 196,000원 [주중+주말] ★유료항공료불포함★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1일째: 녹동남해고속터미널 (09:00)출발 - 호텔 1박	▶1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1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1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2일째: 제주관광or한라산등반 - 호텔 1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 일요일 16:30 출발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00)출발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제주도 패키지 2회 이용시 2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증정or 여행금액 할인 (택, 2인이상 예약시 1인에 한함)

항공/배편/호텔/펜션/렌트카 예약 입금계좌안내: 신한 100-024-625912 예금주: (주)제주무궁화관광

문의 ☎064-744-1109 협찬: 남해고속씨월드헤리